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과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 평가

American Presidential Candidates' Self-Reliance Spirit and Voters' Evaluations of Their Personal Traits

김창남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Chang-Nam Kim(cnkprmr@khu.ac.kr)

요약

이 연구는 미국 오하이오주 포트지 카운티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이 그들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미국인의 문화적 가치인 자립정신이 미국의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해 보았다.

연구결과,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이 연구에서 제시된 11개의 인격적 특성 중 정직성, 신뢰성, 동정심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인격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 대통령후보자의 자립정신은 이들의 능력, 독립성, 결단력, 애국심, 리더십, 카리스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그들의 카리스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연구는 미국인의 문화적 가치, 특히 자립정신이 그들의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 중심어 : 자립정신 | 개인적 성취 | 문화적 가치 | 선거정치 | 인격적 특성 | 미국 대통령 후보자 | 유권자 평가 |

Abstract

In the United States, a marked emphasis on personal achievement has been among enduring values characterizing American culture from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Particularly, Americans have attached great value to the spirit of self-reliance in striving for personal achievement. However,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studies focusing on the effects of Americans' self-reliant spirit on American electoral politics. Through a field experimentation focusing on the voters of Portage County in Ohio,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mericans' self-reliant spirit on the evaluations of presidential candidates' personal traits, which constitute the candidates' charac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merican voters evaluated those presidential candidates who were described as self-reliant significantly more favorably than the presidential candidates who were not so described, for 8 out of the 11 personal traits. The findings provide meaningful evidence for ascertaining the potential and legitimacy of the influences of the spirit of self-reliance, in the American society including electoral politics.

■ keyword : the Spirit of Self-reliance | Personal Achievement | Cultural Values | Electoral Politics | Personal Traits | American Presidential Candidates | Voters' Evaluations |

I. 서론

열심히 노력하여 가난을 떨치고 큰 부자가 되거나 비천한 신분에서 전국적 유명인사로 출세한 사람들에게 대한 뜨거운 관심은 미국 사회에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 대륙을 여행하였던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라스키(Harold J. Laski), 브라이스(James Bryce), 브로겐(Denis W. Brogan) 등 외국인들도 개인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는 미국인과 개인적 성취가 사회적 신분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미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에 미국을 방문하였던 브라이스¹⁾[11]는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이거나, 위대한 웅변가이거나, 위대한 군인이거나, 위대한 작가이거나, 또는 대통령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찬탄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숭배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개인적 성취에 대한 강조는, 종교성 [1][2][16] [18][19][24][25][36][39]과 함께, 미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미국인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가치의 하나이다[12][26][27][29][33][40]. 특히 미국인들은 성취를 위해 분투하는 자립정신을 높이 평가해왔다 [7][12][29][33][40][42].

자립정신이 이와 같이 미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정신이 미국사회에 미친 영향력, 특히 그들의 정치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미국인의 자립정신을 다룬 소수의 실증적 연구들(예: [41])도 대부분 여론조사를 통해 자립정신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조사해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도 최근의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미국인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문화적 가치로서 자립정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먼저 미국인의 성취 지향성이 보여주는 특질 및 이러한 성취지향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광범위한 문헌과 기

존의 실증적 자료들을 통해 고찰해 본 후, 미국인의 자립정신이 미국사회에 미친 영향, 특히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국 대통령 후보자들의 자립정신이 그들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미국인의 전통적 가치인 자립정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립정신이 미국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특히 그들의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국인의 강한 성취 지향성

개인적 성취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과 평가를 보여주는 실증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미국의 정치결사와 믿음에 관한 연구”[29]는 미국인들이 성취 지향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대 다수(74%)는 누구나 자신의 부모보다 더 많은 성취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너럴 밀스 미국 가족 리포트[32]도 미국 부모들의 74%가 자신들의 자녀들이 돈과 성공 면에서 부모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의 정치결사와 믿음에 관한 연구”[29]는 또한 미국인의 74%가 자신을 야망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29]는 미국인의 53%가 일생동안 한 자리에 머무르며 만족하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모두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자신을 야심만만하고 끊임없이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현재 세대 보다 더 크게 성취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미국 사회는 전통이 강한 유럽국가들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사회는 어떤 고정된 형태

1) James Bryce(1838-1922) : 영국의 정치가 및 정치학자. 글래드스톤 내각의 위무차관, 주미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아메리카 공화국(1888) 등을 남겼다.

로 세습되는 사회적 지위가 최소화되고 개인의 성취가 존경받고 높이 평가되는 대단히 경쟁적인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역사가 짧은 신생국으로서 성장이 둔화되어 있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개발할 여지와 기회가 많은 광대한 땅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급성장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가능한 재능을 최대한 국가발전에 동원해야 했었다.

로퍼 기관(The Roper Organization)이 198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4]에 의하면 미국인의 77%는 사는 동안 자신들의 성취 가능성을 아주 좋거나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가 제시하고 있듯이, 미국인들은 미국을 자신들이 원하는 성취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인 성취 지향성의 요인

18, 19세기 미국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던 개인주의도 미국인들의 성취지향성을 촉진했다[7][29]. 개인주의는 미국인들에게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사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사상 속에서 사회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미국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 안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고 여겼다[29].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높은 지위 또는 큰 재산 등을 열심히 노력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미국인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개인적 성취는 자본주의와도 조화를 이룬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사상과 전통은 야망, 경제적 경쟁, 개인적 이익의 추구, 개인적 성취와 같은 것들을 존중하기 때문이다[29].

미국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강조되는 개인적 성취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신교주의(Protestantism)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막스 웨버(Max Weber)가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37]에서 주장했듯이 신교주의는 자본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인 경제적 투자, 합리적 경제계산, 효율성, 검약, 근면과 같은 생산적 가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교주의는 건전하게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서 물질적 부(富)를 크게 이룩한 기술자, 상인, 기업인들을 세상의 도덕적 삶을 실천한 예로 받아들인다[29].

이러한 신교주의적 환경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물질적 부의 추구가 거부감 없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다. 웨버[37]가 세속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금욕주의라고 주장한 신교주의는 물질적 부와 같은 세속적 성취를 목적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지만, 천직(天職)의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과실로서 경제적 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신교주의가 지배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경제적 성취가 곧 그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인식되었다[29].

이민도 미국을 개인적 성취의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미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계층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 미국사회가 내세우는 ‘균등한 기회’라는 이상은 최소한 원칙상에서라도 출생지, 계급,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성취를 추구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도화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여행한 많은 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분투하는 미국인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게 한 원인이었다[9][35].

20세기에 급격하게 성장한 미국의 산업경제와 의회에서 통과된 여러 개의 민권법도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위가 수직적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은 누구나 부와 지위 면에서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으며, 미국의 젊은이는 누구나 대통령 또는 부자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미국의 신문, 설교, 정치연설, 소설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많은 실증적 연구자료들[15][20-22][23]은 미국이 대단히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6개 서방 산업국가와 미국을 직업의 이동성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자료[8]에 의하면, 생산직 계층에서 가장 상위 직업으로의 이동성은

미국이 단연 높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모든 육체노동자 자녀의 7분의 6이 엘리트층으로 상승했는데 다른 6개국에서는 고작 3분의 2 정도만이 엘리트층으로 상승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적 가치, 그리고 신고윤리와 같은 미국인의 문화적 힘이 미국인들이 개인적 성취, 특히 개인적 부의 축적에 높은 가치를 두도록 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해 온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국과 같이 전통적 사회계급질서와 고착된 신분, 그리고 상속된 계층서열 같은 것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환경 속에서는 부(富)가 사회적 위치와 개인적 성취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적 척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3. 미국인의 자립정신에 대한 사회적 영향

미국인들은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윌리엄스[40]도 지적했듯이, 실패의 원인을 운명이라든가 눈먼 운(運), 우연, 사고 또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사람의 캐릭터가 가진 결함에 그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매클로스키와 젤러[29]는 미국인들은 정신노동이건 육체노동이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실업상태에 있거나 국가의 복지혜택에 의지하여 살거나, 심지어 돈이 많아 일하지 않으면서 향락적 삶을 즐기는 것을 경멸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미국사회에서는 개인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또는 패턴)과 그 성취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미국사회에는 사람들의 성취를 존경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성취의 바람직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요건이 존재하고 있다. 웨터[38]가 언급했듯이, 미국의 영웅들은 그냥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어떤 윤리적 틀의 테두리 내에서 성공을 일구어낸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자중하고, 품위있고, 명예로워야 하며, 설령 실제로는 이러한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보이더라도 해

야 한다[38].

같은 맥락에서, 미국인들은 개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자립정신(the spirit of self-reliance)을 높이 평가해왔다[7][12][29][33][40][42]. 미국인들은 진정한 성취나 성공이란 행운이나 상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에머슨[17]은 열정과 확신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야말로 진취적 자립정신의 상징이며, 그런 사람들의 성취는 우연적인 상황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땀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 번 것이라고 확신했다. 제퍼슨은 그가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미국인의 자립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민와 정착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피와 재물을 희생한 결과이지 영국이 도와준 부와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43]라고 말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성공담이나 자립정신에 주어지는 존경과 신뢰는 확실히 미국인들에게서 유난히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합중국의 위대한 건국자 중의 한 사람인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야말로 자신의 창의적 노력으로 성공한 자립적 인물의 전형이다. 가난했지만 그는 피나는 노력과 절제와 자기혁신을 통해 성공을 일궈냈다. 미국인들은 또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Abraham Lincoln)을 높이 추앙하는데, 그 역시 자립정신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링컨은 검소하고, 열심히 일하고, 지적 탐구욕이 강하고 야심만만했을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하였다. 가난에 찌들었던 청년 링컨은 등잔불 밑에서 독학하며 밑바닥 인생인 철도레일 노동자의 신분에서 존경받는 상인과 변호사를 거쳐 마침내 미국 역사에 가장 빛나는 위대한 대통령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표 1. WORK HARD OR LUCK HELPS GET AHEAD, BY TOTAL POPULATION

질문: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행운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Some people say that people get ahead by their own hard work; others say that lucky breaks or help from other people are more important. Which do you think is more important?)

HW =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
(hard work most important)
WL = 자신의 노력과 행운 둘 다 같이 중요
(hard work, luck equally important)
LK = 행운이 가장 중요 (luck most important)

응답	년 도					
	'73	'74	'76	'77	'80	'82
HW	66%	62%	63%	61%	64%	61%
WL	24	29	24	28	28	26
LK	10	9	13	10	8	13
응답자수	1478	1452	1485	1516	1454	1483

응답	년 도				
	'84	'85	'87	'88	89
HW	67%	66%	66%	67%	66%
WL	18	19	19	21	20
LK	15	15	15	12	14
응답자수	1459	1509	1451	971	1021

출처: 미국 NORC가 1973년에서 1989년 사이에 실시한 사회조사결과(41 (= 1972, 1975, 1978, 1983, 1986 및 1989년 이후에는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

미국의 NORC²⁾[41]가 미국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자립정신이 현대 미국인들 사이에 중요한 문화적 가치로 살아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아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인의 절대 다수(1973년부터 1989년 실시된 연구의 응답자들 중 평균 64%)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운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겨우 평균 12%의 미국인들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인들은 단순히 개인적 성취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함과 무명의 밑바닥에서 몸을 세우고 일어나 전진하는 자립정신에 의해 이루어진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강조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립정신이 미국인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문화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정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특히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현실에서 이 연구는 앞에서 밝혔듯이 미국 대통령 후보자가 표출하는 자립정신이 그들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및 연구 문제

미국 정치후보자의 자립정신과 유권자들의 평가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미국 정치후보자의 자립정신이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대통령후보자가 표출하는 자립정신은 그들의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대통령 후보자가 표출하는 자립정신과 그들의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 평가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미국 대통령후보자의 자립정신 유무와 유권자들의 평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본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연구가설 1: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그들의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1의 검증을 통해 이 연구는 미국의 여론조사[5][13]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11개의 구체적인 인격적 특성, 즉 재미있음(being interesting), 정직성(honesty), 신뢰성(trustworthy), 믿음직함(reliability), 능력(competence), 동정심(compassion), 독립성(independence), 결단력(decisiveness), 애국심(patriotism), 리더십(leadership), 카리스마(charisma)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그들의 자립정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연구가설 2: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자의 인격

2) The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 자립정신을 가진 대통령 후보자를 그렇지 않은 대통령 후보자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

이 연구는 연구가설 2의 검증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11가지 인격적 특성 각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서 자립정신의 유무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실험(experiment)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무작위화(randomization)와 의도적 실험디자인을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외부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독립변수의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또한 실험은 광범위한 모집단으로부터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모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려는 연구방법이 아니라 상이한 차원의 실험자극이 실험 그룹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방법이므로 서베이 방법과 같이 큰 표본이 필요하지 않다[3].

2.1 독립변수의 조작(manipulation) 및 실험 설문지

이 연구는 독립변수인 자립정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작성된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약전(略傳; biographical sketch)을 피실험자들에게 제시하고 이 대통령 후보자들의 인격적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두 타입의 가상적 약전은 모두 미국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표준적 묘사를 공통적으로 포함하였으나 자립정신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묘사를 추가하였다: "From humble origins characterized by poverty and few educational opportunities, this candidate has risen above these conditions to achieve political success and positions of influence, mainly through hard work, diligence, and efforts at self-improvement."

2.2 종속변수, 측정척도 및 자료처리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미국 대통령후보자의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로 이루어졌다.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 정치후보자의 인격적 특성의 범주에 대한 합

의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는 미국의 여론조사[4, 13] 및 선행연구[2, 24]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11개의 구체적 인격적 특성을 선택하였다.

또한 미국 대통령후보자의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상이한 차원의 자립정신이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해 보기 위해 이 연구는 10점 척도(0: 최저 평가, 10: 최고 평가)를 채용하였다. 0~10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숫자 개념이기 때문에 10점 척도는 다차원적 개념의 의미를 정교하게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의 자료는 SPSS 15.0을 사용하여 처리되었다.

2.3 실험 디자인 및 예비 실험

이 연구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외생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성(gender)과 인종을 실험 디자인에서 배제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실험 자극으로 사용되는 진술문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성과 인종을 밝히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이 연구는 독립변수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연구의 실험자극으로 사용된 진술문에 묘사된 대통령 후보자는 도나후[14]가 교육, 정치 경험, 공직기록과 관련하여 정의한 미국 대통령의 표준적인 자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자극의 포맷은 김[24]의 연구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예비실험을 반복하지 않았다.

2.4 피실험자

이 실험 연구의 참여자는 미국 오하이오(Ohio) 주 포트지 카운티(Portage County)³⁾에 거주하는 잠재적 유권자로 구성되었다. 2000년도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이곳의 인종비율은 백인 96.4%, 흑인 1.75%, 아시아계 미국인 0.18%, 미국 원주민 0.37%, 기타 1.92%였다[34]. 실험 참여자들은 먼저 포트지 카운티의 전화번호 부에서 무작위로 추출되었으며, 이후 연구 참여의사를 전화로 타진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52명의 포트지 카운티 거주자에게 미국 대통령후보자의 약전

3) 포트지 카운티는 클리블랜드 인근지역으로 연구자가 장기간 거주하였기 때문에 실험 수행에 편리하였다.

이 포함된 설문지를 우송하였다. 그 결과 82명(남성: 38, 여성: 44)의 완성된 설문지를 확보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6년 6월 초에 시작하여 6월 말에 종료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의 나이는 18~83까지 분포되었으며, 인종적으로는 백인(white) 72, 아프리카계 미국인 5, 아시아계 미국인 1, 미국 원주민(native) 1, 기타 2, 인종 불명 1이었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실험은 상이한 차원의 실험자극이 실험 그룹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를 파악하려는 연구방법이므로 이 피실험자들을 통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IV. 연구 결과

1. 연구가설 1의 검정 및 연구문제 관련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인격적 특성 11개는 앞서서 밝혔듯이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주요 인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들 11개 척도 전체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0.78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또한 11개 인격적 특성 전체에 대해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그들의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9.38, p < .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가설 1을 강력하게 지지해 준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립정신이 있는 미국 대통령 후보자를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하여 미국 유권자들이 더 호의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결과는 집안 배경이 좋아 수월하게 높은 지위나 부(富)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주는 대통령 후보자나 특별한 행운에 의해 지위나 부(富)를 갖게 된 대통령 후보자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호의적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현재 위치에 대한 단순한 평가보다 그러한 위치에 이르게 된 과정, 특히 비천한 배경이나 가난으로부터 몸을 일으켜 성공하게 만든 자립정신을 대통령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인격적 질(personal quality)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선거정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불굴의 의지와 자립정신으로 모진 가난과 비천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부와 명예와 지위를 이룬 대통령 후보자들의 전기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준다. 실제로 한국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도 이런 자립정신의 소유자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문화와 정치적 환경은 다르지만 어느 나라의 유권자들이나 그들의 국가적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인격적 특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연구가설 2의 검정 및 연구문제 관련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된 11개의 인격적 특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가 보여주듯이,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8개의 인격적 특성(재미있음, 믿음직함, 능력, 독립성, 결단력, 애국심, 리더십, 카리스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p < .05$ 또는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도 비교적 제시된 대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 능력, 독립성, 결단력, 애국심, 리더십, 카리스마에 대한 평가

이 연구의 변량분석 결과가 요약되어 있는 [표 2]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자립정신이 있는 대통령 후보자를 그렇지 않은 대통령 후보자 보다 능력, 독립성, 결단력, 애국심, 리더십, 카리스마 면에서 훨씬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 < .01$).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가 실험분석을 적용한 11개의 인격적 특성은 정치인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로서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6개의 인격적 특성, 즉 능력, 독립성, 결단력, 애국심, 리더십, 카리스마는 미국과 같이 광대한 국토, 많은 인구, 그리고 강한 다양성을 가진 나라의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격적 질(qual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결과는 자립정신이 결여된 캐릭터를 가진 미국 대통령 후보자는 비록 그가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위, 명예,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미국인들이 어떤 다른 선진 산업국가의 국민들보다 개인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는 성취지향성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단순히 결과로서의 개인적 성취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성취가 이루어진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성취가 자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때 능력, 독립성, 결단력, 애국심, 리더십, 카리스마와 같이 지도자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인격적 특질과 관련하여 높은 평가를 내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가 보여주듯이, 이 연구는 또한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6개의 인격적 특질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가장 큰 영향($p < .01$, $F(1, 78) = 11.78$)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사실 결단력, 독립성, 능력, 리더십, 애국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특이한 인격적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에 의해 공통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인격적 특질들의 본질적 상호연관성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이 그들의 ‘카리스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또한 미국인들이 자립정신에 주는 독특한 존경 및 신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웨터[38]는 미국에서 자립적으로 지도자나 영웅이 된 사람들은 자중하고, 품위있고, 명예롭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머슨[17]은 자신의 열정과 확신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취적 자립정신의 상징이라고 확신했다. 미국 지식인들의 이와 같은 견해는 미국인들이 자립정신에 부여하는 존경, 명예, 신뢰 및 품격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에서 자립정신이 차지하는 이러한 중요성과

표 2.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이 인격적 특성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인격적 특성	자립정신의 영향	F-value
재미있음	*	$F(1, 78) = 5.49$
정직성		
신뢰성		
믿음직함	*	$F(1, 78) = 4.48$
능력	**	$F(1, 78) = 9.45$
동정심		
독립성	**	$F(1, 78) = 10.42$
결단력	**	$F(1, 78) = 10.45$
애국심	**	$F(1, 78) = 8.29$
리더십	**	$F(1, 78) = 10.62$
카리스마	**	$F(1, 78) = 11.78$

1= 약전에 자립정신이 묘사된 후보자
 2= 약전에 자립정신이 묘사되지 않은 후보자
 * $p < .05$ ** $p < .01$ N = 82
 측정척도: 1~10점 의미 분별 척도
 (1= "가장 강한 부동의," 10= "가장 강한 동의")

카리스마로 미루어볼 때 대통령 후보자의 캐릭터가 투영하는 자립정신이 그들의 카리스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라 할 수 있다.

2.2 재미있음, 믿음직함, 정직성, 신뢰성, 동정심에 대한 평가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그들의 ‘재미있음’과 ‘믿음직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행운이나 상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립적 노력으로 높은 지위, 부 또는 명예를 이룩한 대통령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대통령 후보자에 비하여 더 관심을 끄는 사람, 더 믿음직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정치에서 재미있는 후보자로 평가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지세력 건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믿음직함의 측면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는다는 것은 국정을 맡길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믿음직함(reliability)이란 신뢰성

(trustworthy)과는 다른 차원의 인격적 질로서 본질적으로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그들의 능력 면에서의 믿음직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연구는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이 그들의 정직성, 신뢰성, 동정심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과 그들의 정직성, 신뢰성, 동정심 같은 인격적 특성 사이에 별로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해서, 미국 유권자들은 자립정신이 있는 대통령 후보자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후보자 보다 정직성, 신뢰성, 동정심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미국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가 자립적으로 역경을 이기고 출세하는 과정에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직성과 신뢰성 상의 문제점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자립적 인물들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만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어떤 윤리적 틀의 테두리 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며,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웨터[38]의 견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제시했듯이 자립정신을 소유한 미국 대통령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후보자 보다 동정심 면에서도 유권자들의 평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동정심이라는 측면에서 넉넉하지 못하고 까칠한 캐릭터를 투영할 가능성이 있음을 일깨워 준다. 아울러, 현실 속에서 자립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마음을 단속하고 어려움에 맞서 분투한 대통령 후보자들은 그런 삶의 과정에서 동정심 같은 것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선입견이 이러한 연구결과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미국의 선거정치에서 자립정신이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그의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서 그렇지 않은 후보자보다 전반적으로 더 호의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

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이 정치,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다양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카리스마, 리더십, 결단력, 독립성, 능력, 애국심 면에서 자립정신이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미국의 유권자들로부터 더 호의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미국인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문화적 가치로서 자립정신이 가진 중요성에 주목하여 자립정신이 미국인의 정치생활, 특히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이 그들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요소인 인격적 특성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미국 오하이오주 포트지 카운티(Portage County)의 잠재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결과,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제시된 11개의 인격적 특성 중 8개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그들의 능력, 독립성, 결단력, 애국심, 리더십, 카리스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더 큰 영향($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이들 6개의 인격적 특성 중에서도 카리스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그들의 정직성, 신뢰성, 동정심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강한 자립정신을 가진 대통령 후보자가 유권자들로부터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광대한 국토, 많은 인구 및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인격적 질(quality)인 카리스마, 리더십, 결단력, 독립성, 능력, 애국심 면에서 자립정신을 가진 대통령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대

통령 후보자보다 유권자들로부터 훨씬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좋은 배경 또는 운(運)이 작용하여 높은 지위, 부(富), 또는 명예에 이른 대통령 후보자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호의적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또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을 단순히 그들의 현재 위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위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임을 일깨워 준다. 즉, 미국 유권자들은 비천한 배경이나 가난으로부터 몸을 일으켜 성공하도록 한 자립정신을 대통령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인격적 질(quality)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인의 자립정신이 미국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특징짓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미국사회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계급적 전통이 강한 유럽인들과 달리 자신들의 비천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과장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또한 이 연구는 “지도자들은 어떤 광범위한 가치들이 공유되는 문화 속에서 일 한다”라고 말한 바버[6]의 관찰이 던지는 의미를 상기시켜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인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문화적 가치인 자립정신은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캐릭터, 특히 캐릭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인격적 특성이 유권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평가되는 기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연구는 미국인의 자립정신이 미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문헌분석과 현존하는 실증적 자료, 그리고 2006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포티지 카운티(Portage County)의 제한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비록 이 연구가 이 분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희박한 상황에서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쳐온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을 가늠하고 인식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연구의 의미를 보다 공교히 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최근 미국인들의 대표성을 가진 피실험자들에 대한 반복 실험을 통해 연구결과가 검증되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

적 정향성은 다른 나라의 유권자들에 비해 비교적 지속성이 강하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국 대통령의 자립정신이 이들의 인격적 특성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일반적 경향을 가늠하게 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문화적 가치 또는 문화적 콘텐츠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준다.

참고 문헌

- [1] 김창남, “미국인의 종교성이 정치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미국학논집, 제38집, 제3호, pp.63-89, 2006.
- [2] 김창남,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종교성과 유권자 평가”,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제3호, pp.215-238, 2007.
- [3] 이영준, *분산분석의 이해*, 석정, 2000.
- [4] “Americans Assess Opportunity,” Public Opinion, Vol.5, No.3, pp.21-26, 1982.
- [5] *American Public Opinion Index*, Opinion Research Service, 1982-1989.
- [6] James David Barber, *Political Leadership in American Government*, Little, Brown and Company, 1964.
- [7] Robert Bellah, Richard Madsen, William M. Sullivan, Ann Swidler, and Steven M. Tipton,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8] Peter Blau and Otis Dudley Duncan,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John Wiley, 1967.
- [9] Arvid Brodersen, “Themes in the Interpretation of America by Prominent Visitors from Abroa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295, pp.21-32, 1954.
- [10] Steven R. Brown and Lawrence E. Melamed,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Sage Publications, 1990.
- [11] James Bryce, *The American Commonwealth*, Vol.2, Macmillan, 1923.
- [12] John G. Cawelti, *Apostles of the Self-Made M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 [13]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The CPS 1976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1976.
- [14] Dennis V. Donoghue, "Appraising Presidential Contenders During the Misty Period,"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82, pp.721-735, 1988.
- [15] Otis Dudley Duncan, "The Trend of Occup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0, pp.491-498, 1965.
- [16] Robert S. Erikson, Norman R. Luttbeg, and Kent L. Tedin,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 and Impact*, 3rd ed., Macmillan, 1988.
- [17] Edward W. Emerson, ed., *The Complete Works of Ralph Waldo Emerson*, 12 Vols., Houghton Mifflin, 1904.
- [18] George, Jr. Gallup, and Jim Castelli, *The People's Religion: American Faith in the 90's*, Macmillan, 1989.
- [19] John C. Green and James L. Guth, "The Bible and the Ballot Box: The Shape of Things to Come," In James L. Guth and John C. Green, eds., *The Bible and the Ballot Box: Religion and Politics in the 1988 Election*, pp.207-225, Westview Press, 1991.
- [20] Robert M. Hauser and David L. Featherman, "Trends in the Occupational Mobility of U.S. Men, 1962-1972,"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8, pp.302-310, 1973.
- [21] Robert M. Hauser, and David L. Featherman, "Socioeconomic Achievements of U.S. Men, 1962-1972," *Science*, Vol.185, pp.325-331, 1974a.
- [22] Robert M. Hauser, and David L. Featherman, "White-nonwhite Differentials in Occupational Mobility Among Men in the United States, 1962-1972," *Demography*, Vol.11, pp.247-265, 1974b.
- [23] Robert M. Hauser, John N. Koffel, Harry P. Travis, and Peter J. Dickinson, "Temporal Change in Occupational Mobility: Evidence for Me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0, pp.279-297, 1975.
- [24] Chang N. Kim, *Political Candidates' Cultural Values in Voters' Evaluations: Religiosity, Self-Reliance, and Voluntarism in the United States*, Doctoral Dissertation, Kent State University, 1995.
- [25] David C. Leege, "Religion and Politics in Theoretical Perspective," In David C. Leege and Lyman A. Kellstedt, eds., *Rediscovering the Religious Factor in American Politics*, pp.3-25, M. E. Sharpe, Inc, 1993.
- [26] Seymour Martin Lipset, *The First New Nation: The United States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Basic Books, Inc, 1963.
- [27] David C. McClelland, *The Achieving Society*, D. Van Nostrand, Inc., 1961.
- [28] Michael McGiffert ed, *The Character of Americans*, Dorsey Press, 1964.
- [29] Herbert McClosky and Zaller John, *The American Ethos: Public Attitudes toward Capitalism and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30] Perry Miller, *The New England Mi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 [31] Saul K. Padover, ed., *The Complete Jefferson*, Duell, Sloan and Pearce, 1943.
- [32] "Raising Children in a Changing Society," The General Mills American Family Report 1976-1977, Yankelovich, Skelly and White, Inc., 1977.
- [33] Bernard C. Rosen, Harry J. Crockett, and Clyde Z. Nunn, eds., *Achievement in American Society*,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1969.
- [34] U. S. Census Bureau. *2000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of the United States*, U.S. Census Bureau Public Information Office, May, 2001.
- [35] Ruth Hill Useem, John Useem, "Image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ish Held by Foreign Educated Indian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tudies*, Vol.295, pp.73-82, 1954.
- [36] Kenneth D. Wald, *Religion and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St. Martin's Press, 1992.
- [37]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alcott Parsons, trans., Scribner's, 1958.
- [38] Dixon Wecter, *The Hero in America*, Scribner's, 1941.
- [39] Rupert Wilkinson, *The Pursuit of American Character*, Harper & Row, Publishers, 1988.
- [40] Robin M. Jr. Williams, *American Societ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Alfred A. Knopf, Inc., 1970.
- [41] Floris W. Wood ed., *An American Profile-Opinions and Behavior, 1972-1989*, Gale Research Inc., 1990.
- [42] Daniel Yankelovich, *New Rules: Searching for Self-Fulfillment in a World Turned Upside Down*, Random House, 1981.
- [43] Saul K. Padover, ed., *The Complete Jefferson*.

Duell, Sloan and Pearce, 1943.

저 자 소 개

김 창 남(Chang-Nam Kim)

정회원



- 1981년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문학사)
- 1990년 :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정치학과(정치학석사)
- 1995년 :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정치학과(정치학박사)

▪ 1998년 ~ 현재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정치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